

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이슈브리프

코로나19에 따른 외환시장 동향 및 전망

코로나19에 따른 채권시장 동향 및 전망

북한포커스

북한의 코로나19(COVID-19) 대응 현황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

주간 KDB리포트 Contents

이슈브리프

코로나19에 따른 외환시장 동향 및 전망	1
코로나19에 따른 채권시장 동향 및 전망	4

북한 포커스

북한의 코로나19(COVID-19) 대응 현황	7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	10
--------------------	----

코로나19에 따른 외환시장 동향 및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 김혜진 (ghjkim@kdb.co.kr)
 이미영 (miyoung@kdb.co.k)

- ◆ 최근 ① 달러화 안전자산 지위 강화, ② 외국인 주식자금 이탈 가속화, ③ 달러화 단기자금시장 경색 등의 영향으로 원/달러 환율은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로 급등 - 한-미 통화스왑계약 체결(3.19일, 600억달러) 이후 달러화 수급 불안 잠시 해소
- ◆ 전세계적인 달러화 강세 기조 가운데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될 경우 외환시장의 불확실성 증폭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

□ 원/달러 환율은 3.10일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하여 1,200원대 초반 수준에서 등락 하였으나, WHO의 팬데믹 선언(3.11일) 이후 급격하게 상승

- 특히, 3.19일 1,285.7원으로 급등하여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* 기록하였으며, 전일 대비 상승폭(40원, 종가기준)도 금융위기(42.5원, '09.3.30) 후 최대
- * 금융위기 당시 최고치는 1,570.7원('09.3.2일), 이후 고점은 1,315원('09.7.12일)

□ 환율 급등의 배경으로 ① 달러화 안전자산 지위 강화, ② 외국인 주식자금 이탈 가속화, ③ 달러화 단기자금시장 경색 등을 들 수 있음

- 극심한 안전자산 선호 및 유동성 확보 수요가 달러화 쏠림현상으로 연결 - 3.10일까지 혼조세를 보이던 달러 인덱스*가 3.11일 이후 급등한 반면, 그간 안전통화로 여겨지던 엔화는 약세 전환
- * 메이저 6개 통화(유로화, 엔화, 파운드화, 캐나다 달러, 스위스 프랑, 스웨덴 크로네) 대비 달러화 가치
- 유동성 확보를 위한 달러화 수요 급증으로 금 가격도 하락

최근 원/달러 환율 및 달러 인덱스 추이



자료 : 인포맥스

최근 엔/달러 환율 및 금 가격 추이



자료 : 인포맥스

- 전년 순매수(1.6조원)를 기록하였던 외국인 주식투자*는 순매도로 전환되었으며, 올해 순매도액 13.1조원 중 10.1조원이 3월에 발생('20.3.20일 현재)
 - * 선진국·신흥국 시장 모두에서 주식펀드자금이 유출, 코스피 지수는 2월말 대비 21.2% 하락
 - 또한, 환율 상승이 다시 주식 매도·주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으로 연결
- 아울러, 외화자금시장의 달러 수급 여건 악화가 환율 상승을 가속화
 - 외국인 주식 매도, 해외자산에 투자한 증권사들의 마진콜* 대응 등에 따른 달러화 수요 급증으로 달러화 조달 여건 악화
 - * 투자손실이 커져 일정잔액 이하로 떨어질 경우 자산을 강제로 청산하는 조치
 - 단기자금시장 신용 컨디션을 나타내는 LIBOR-OIS 스프레드*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확대
 - * LIBOR-OIS Spread : ('19년말) 34.7bp → ('20.2월말) 22.9bp → ('20.3.20일) 109.7bp

□ 외환당국은 외환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하여 외환시장 안정조치를 발표하였으며, 한-미 통화스왑계약 발표(3.19일) 이후 달러수급에 대한 불안이 다소 해소

- 3.18일 기획재정부는 국내은행의 원활한 외화 공급을 위하여 선물환매입 포지션 한도를 확대(국내은행 40% → 50%, 외은지점 200% → 250%)
 - 은행의 외화자금 공급여력 확대를 위한 안정조치에도 불구하고 달러 수급에 대한 불안심리가 진정되지 않아 다음날(3.19일) 환율 급등
- 3.19일 한-미 통화스왑계약 체결 발표(20시) 이후 불안심리가 다소 해소됨에 따라 3.20일 환율이 큰 폭(39.2원)으로 하락
 - 통화스왑계약 규모는 600억달러로 금융위기 당시 맺었던 300억달러의 2배이며, 기간은 최소 6개월간('20.9.19일까지)
 - 금융위기 당시 한-미 통화스왑계약 체결('08.10.30일)이 환율 안정*에 기여
 - * 원/달러 환율 추이 : ('08.8월말) 1,088.9원 → ('08.10.28일) 1,467.9원 → ('08.10월말) 1,290.5원, CDS 프리미엄 추이 : ('08.8월말) 116bp → ('08.10.27일) 700bp → ('08.10월말) 382.5bp

<참고> 금융위기 당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대응

날 짜	주요 내용
'08.10~12월	- 주요국과 통화스왑계약 체결 · 한-미 300억달러, 한-일 200억달러, 한-중 1,800억위안
'08.4분기	- 외화유동성 지원계획 발표(850억달러)
'08.10.30일	-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
'08.11.3일	- 외화예금도 예금자 보호대상으로 확대

자료 :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백서 편찬위원회(2012), 「글로벌 금융위기와 한국의 정책대응」

□ 향후 미국의 코로나19 확산 속도, 금융시장 움직임에 따라 추가 상승세 재현 가능성 감안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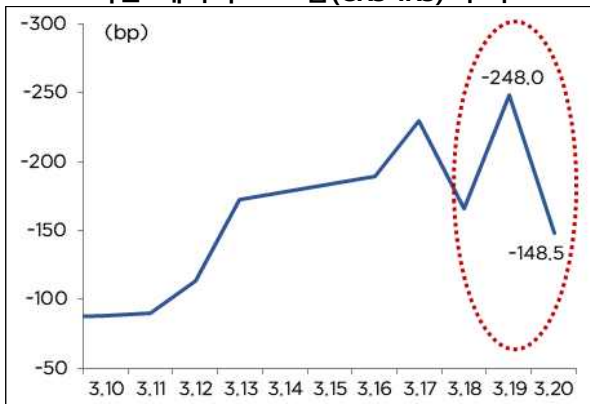
- 당분간 달러화 보유 성향, 수출 감소 우려 등 달러화에 대한 강세요인이 우세
 - 추가하락 등 자산가격 조정에 대한 공포로 달러화 보유에 대한 수요가 강화 되었으며, 현재 얼마나 지속될 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
 - 이는 미국의 통화정책 완화 및 경제전망 악화 등의 달러화 약세요인을 압도
 - 수출 감소 등으로 외환시장 내 달러화 공급은 감소하는 반면 유동성 확보를 위한 외국인 주식 매도 등 달러화 수요는 증가하여 수급상으로도 상승압력 우세
 - 유가 하락*에 따른 수입 감소가 예상되나 소비심리 위축, 글로벌 밸류체인 교란 등에 따른 수출 감소의 영향이 더 클 전망**

* 유가 추이(WTI, 달러/배럴): ('19년말) 61.06 → ('20.2월말) 44.76 → ('20.3.20일) 22.63

** '20.1~2월 중국의 수출과 수입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17.2%, 4.0% 감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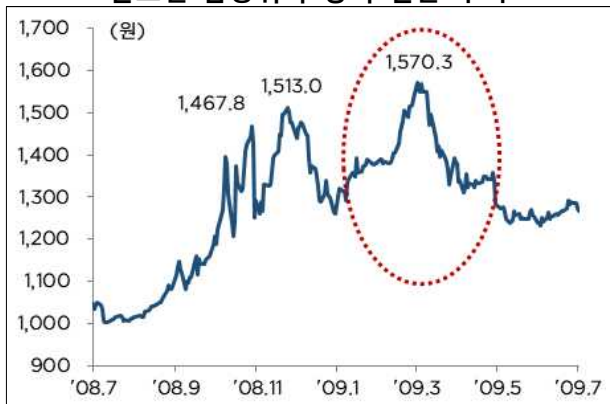
- 단기적으로는 한-미 통화스왑계약 체결 등이 상승 방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, 미국 내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인한 불안심리가 확대될 경우, 외환시장의 불확실성 증폭 예상
 - 통화스왑계약 체결 이후 외화자금시장에서의 달러 경색이 다소 완화되었으며, 과거 대비 대외건전성*과 국내은행의 외화 유동성** 역시 양호한 상황
 - * 외환보유액 추이(억달러): ('08년말) 2,012 → ('19년말) 4,088 → ('20.2월말) 4,092
 - ** '20.2월말 외화 LCR 비율 128.3%(잠정)으로 규제수준인 80%를 크게 상회
 - 그러나, 유럽 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어 금융시장 내 불안감 및 불확실성이 큰 폭으로 확대될 수도 있음
 - 금융위기 당시 통화스왑계약 체결 후에도 글로벌 경기침체 심화 우려, 동유럽 금융위기 확산 우려 등으로 원/달러 환율은 다시 급등세 시현

최근 베이스스 스왑(CRS-IRS) 추이



주 : (-)폭이 클수록 달러조달비용 증가
자료 : 인포맥스

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 추이



주 : 위는 일별이며, 월표시 부분은 매월 초임
자료 : 인포맥스

코로나19에 따른 채권시장 동향 및 전망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이유나 (ynrhee@kdb.co.kr)

- ◆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내 기준금리는 0%대에 진입했으며 최근 시장금리(국고채3년)는 급락·급등을 반복하며 높은 변동성 시현
 - 회사채시장의 경우 신용스프레드가 확대되고 목표발행액 미달이 발생하는 등 불안감 증대
- ◆ 향후 신용스프레드 확대가 예상되며, 특히 회사채시장의 양극화와 한계기업 중심의 신용경색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

□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국내 기준금리는 사상 최초로 0%대에 진입했으며 최근 시장금리(국고채3년)는 급락 후 상승 반전

- 3.15일 미국의 제로금리(1.00~1.25% → 0.00~0.25%, △100bp) 시행* 직후 임시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하(1.25% → 0.75%)
 - * 3월 두 차례 임시FOMC를 통해 정책금리를 인하(3.3일 △50bp, 3.15일 △100bp)하고, 제로금리 유지에 대한 포워드가이드스 제시
- 2.27일 정기금통위에서는 기존 1.25%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으며, 3.16일 임시 금통위*는 '08년 이후 처음 개최
 - * 과거 임시금통위 사례 : '01년 △50bp(4.50% → 4.00%), '08년 △75bp(5.00% → 4.25%)
- 시장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며 1월말부터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으나, 3.19일 외국인 국채 선물 매도세 등으로 장중 1.3%대까지 급등하는 등 변동성 심화

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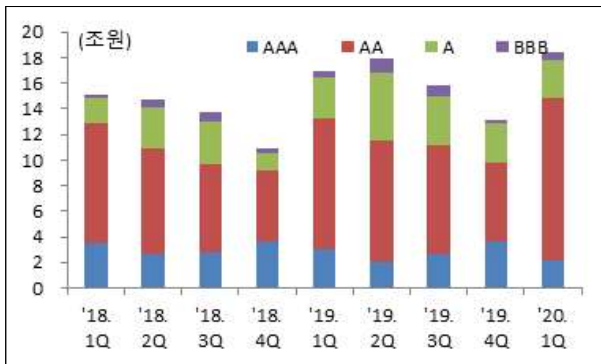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인포맥스

□ 회사채시장은 금융시장 불안감 증대로 신용스프레드 확대, 발행규모 축소 및 수요예측 미달 상황 발생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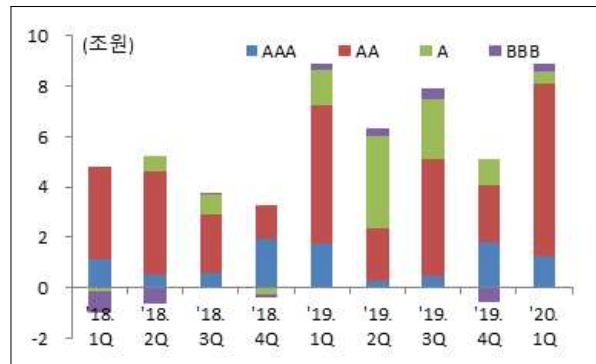
- 신용스프레드*는 미국 대비 안정적이거나 3월 이후 확대, 3.20일에는 최근 약 8년 중 최대치인 84bp(AA-, 3년) 기록
 - * 한국 AA-(3년) 신용스프레드(bp, 금투협 대표수익률) : ('19년말) 58 → ('20.2월말) 60 → (3.20일) 84
 - 최근 미국 회사채 신용스프레드*가 큰 폭으로 확대되어 신용경색 우려 고조
 - * 미국 투자등급(5년 CDX IG) : (2.21일) 47bp → (3.17일) 125bp, +78bp
 - 미국 투기등급(5년 CDX HY) : (2.21일) 294bp → (3.17일) 651bp, +357bp
- 회사채 발행의 경우 순발행을 유지 중이나 최근 목표발행액 미달이 속출
 - 3.1~20일 회사채 발행규모는 4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조원 감소(△20%)
 - 3월 중 하나은행 후순위채(AA, 3천억원), 키움캐피탈(BBB+, 5백억원), 포스파워(AA-, 5백억원) 등 채권 수요예측 시 미달 발생

회사채 발행규모 추이



주 : '20.1분기는 3.20일까지임
자료 : 코스콤

회사채 순발행규모 추이



주 : '20.1분기는 3.20일까지임
자료 : 코스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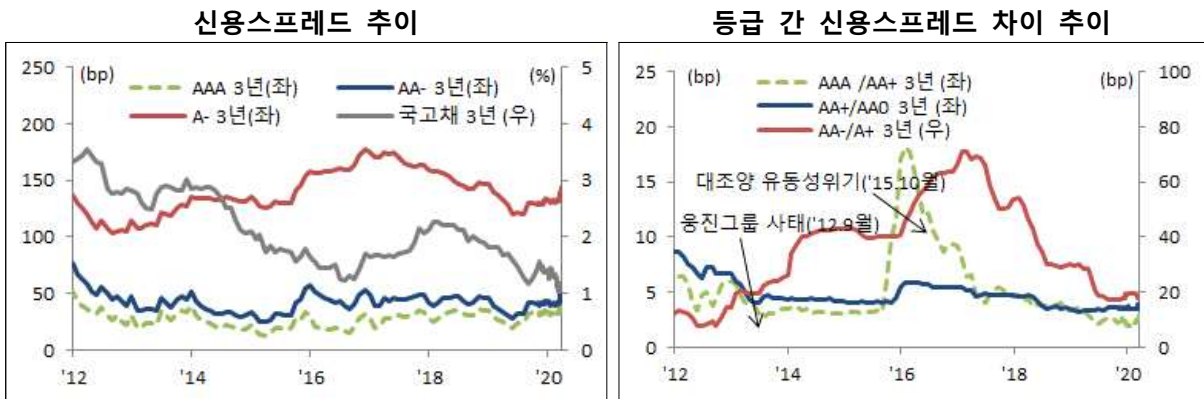
□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,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통화정책 대응 중

- 임시금통위 개최 및 기준금리 50bp 인하(3.16일)
 - 금리 인하 배경은 ① 2월말 대비 경기 하방위험 확대, ② 미국 등 주요국 금리 인하 공조 강화 등
-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 및 금리 인하*(2.27, 3.16일), 공개시장운영 RP 매입대상 확대(은행채 추가, 3.16일),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 계획 발표(3.19일)
 - * 규모 확대 +5조원(25조원 → 30조원), 금리 인하 △25~△50bp(0.50~0.75% → 0.25%)
- 국고채 1.5조원 단순매입(3.19일) 등 시장금리 안정화 조치 시행

□ 향후 신용스프레드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회사채시장의 양극화 및 한계기업 등의 신용경색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

- 시장금리(국고채3년)는 실물경기와 경제심리 위축에 따른 하락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나, 최근 기간스프레드의 급격한 확대 등을 고려 시 불확실성이 큰 편
 - 아울러, 국고채 발행규모 확대에 따른 수급부담 등은 금리하락의 제약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
- 신용스프레드 확대 및 회사채시장 양극화 우려
 - 기업 수익성 악화,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 등으로 인해 신용스프레드의 급격한 확대 및 회사채 투자수요 위축 가능
 - 특히, '12~'17년 동안 두드러졌던 회사채시장 양극화 현상*이 다시 재현될 가능성에 유의 필요

* AA-/A+ 등급 간 신용스프레드는 '12년 웅진그룹 사태, '15년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위기 등으로 빠르게 확대, AA와 A 등급간 양극화 진행



주 : 민간 채권평가사 3사 회사채수익률 평균
자료 : 인포맥스

주 : 민간 채권평가사 3사 회사채수익률 평균
자료 : 인포맥스

- 한계기업을 중심으로 신용경색 우려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
 -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신용등급 하락·부도 등 신용이벤트가 투자심리 위축, 다른 기업들의 차입비용 상승 및 실물경제 악화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음
 - 항공산업 등 매출채권 담보 ABS 트리거 발동 가능성, 무보증 회사채의 리볼빙 수요 등 모니터링 필요
- 다만, 향후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,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 등 추가적인 정책 조치에 대한 기대감이 완충장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

북한의 코로나19(COVID-19) 대응 현황

KDB미래전략연구소 한반도신경제센터
이 유 진 (yjrhee@kdb.co.kr)

- ◆ 북한은 코로나19(COVID-19) 예방을 위해 2월 초부터 현재까지 의심 환자를 격리·관리하고 국경차단과 방역사업 실시
- ◆ WHO, 국경없는의사회 등 국제사회는 보건의료 품목을 UN 제재 면제 신청 후 지원 허가를 받았지만 물품 수급 및 전달이 어려운 상황
- ◆ 향후 방역사업 강화, 면역활성제 개발과 진단역량 증진 등을 통해 코로나19에 대응할 것으로 전망

□ 북한은 1월 말부터 현재까지 약 3개월간 코로나19에 대한 초동 대처와 위생 방역사업을 실시 중

- 초동대처 차원에서 국경지역을 차단, 중국에서 북한으로 입국 전면 금지
 - 입국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(1.27)하여 무역 및 관광 중단
 - * Radio Free Asia(RFA), "북, 우한폐렴 차단위해 국경 무역 전면 금지"(20.1.28)
 - 국외에서 평양으로 들어오는 국제항공, 국제열차와 선박 운행 중단
 - * 조선신보(20.2.27)
-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* 관할 아래 국가계획위원회가 비상방역조직을 총괄, 의심 환자에 대한 격리와 검진 실시
 - 각 성(정부부처), 중앙기관 단위에서 전방위 위생 방역을 추진
 - *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산하 범부처 조직으로, 범유행 발생시 설립되는 비상설 조직 (KDI, 「KDI 북한경제리뷰」, '20년 2월호)
 - 2월 초부터 입국자와 접촉자를 격리 감시하고, 격리 기간을 30일로 연장하는 등 의학적 감시 강화
 - *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령 (20.2.13)
- 코로나19 확진자가 없음을 공식 발표하고 의심자를 일부 격리 해제했으나, Guardian 등 외신에 따르면 발병사례가 있다는 보도가 있음

- 北보건성은 공식 확진 환자를 0명으로 발표하고 증상 및 징후가 없는 5,600여 명을 격리해제*
 - * 조선중앙통신('20.3.6, 3.13), 조선중앙방송('20.3.8, 3.13)
- 외신은 단둥 인근, 나선, 평양 등 발병사례를 보도, 에이브럼스 주한 美사령관도 발병사례 가능성을 밝히는 등 감염확산 우려 증대*
 - * Guardian('20.2.14), VOA뉴스투데이('20.3.14)

□ 국제사회는 코로나19 진단 및 방역 물품을 일부 지원했으나, 최근 범유행 (Pandemic)으로 물품 구입 및 전달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

- (既지원) 세계보건기구(WHO)는 대북제재 면제* 승인을 통해 전염병 검사장비, 진단 키트, PCR기기** 등 일반적 감염병 진단 및 방역물품을 지원 (19.9월 승인 후 12월 반입)
 - *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시 1718 제재위원회(안보리 산하기구) 앞으로 요청서 제출 후 지원품목의 제재 저축 여부를 확인·승인을 받아야 함
 - ** 코로나19 등 바이러스 진단방법으로 검체를 진단키트에 넣고 PCR(특정 유전자 증폭) 검사를 통해 진단
- (既승인) WHO, 국경없는의사회 등은 코로나19 진단 및 방역에 필요한 물품 지원을 위한 제재 면제를 승인받았음

1718 제재위원회 대북제재 면제 승인 내역

단체명	사업내용	승인일
WHO	· 백신예방가능 질병 연구 장비, 중환자 치료 장비, 응급의료 장비, 혈액백 제조 장비 등	'19.9.20
	· 원격의료 등 의료 진단장비, 생명구조 장비	'20.1.28
	· 코로나19 예방 및 진단 장비, 방역 물품(유전자 검사기기, 시료채취 기구, 산소발생기 등)	'20.2.27
국경없는의사회 (MSF)	· 코로나19 진단 및 방역 물품(의료용 고글, 샘플 채취용 시험관, 검사용 의료장비 등)	'20.2.20
국제적십자사연맹 (IFRC)	· 코로나19 진단 및 방역 물품(PCR기기, 검사시약, 적외선 체온계, 의료용 마스크)	'20.2.21
한국샘복지재단	· 코로나19 방역물품(엑스레이 장비 등)	'20.2.24

자료 : 1718 제재위원회 홈페이지

- 현재 북·중 접경도시에 도착한 방역 물품들이 북한의 외부물자 통관절차 강화로 인해 전달 지연 중

□ 방역사업 강화, 면역활성제 개발과 진단역량 등을 증진하여 코로나19에 대응 전망

- 북한은 자체적인 노력으로 국경차단과 함께 방역사업을 강화
 - * 코로나19 예방 치료법이 개발될 때까지 국경차단을 지속하겠다 밝힘 (조선신보, '20.2.27)
 - 북한 내 피돌린산코겔* 개발을 통해 치료에 대비하고 있으나 실시간 변종을 일으키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을 치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
 - * 인삼추출물 기반 치료제로 코로 감염되는 바이러스를 비활성화하는 효력이 있으나 항바이러스제로 확인된 바는 없음 (메아리, '20.3.1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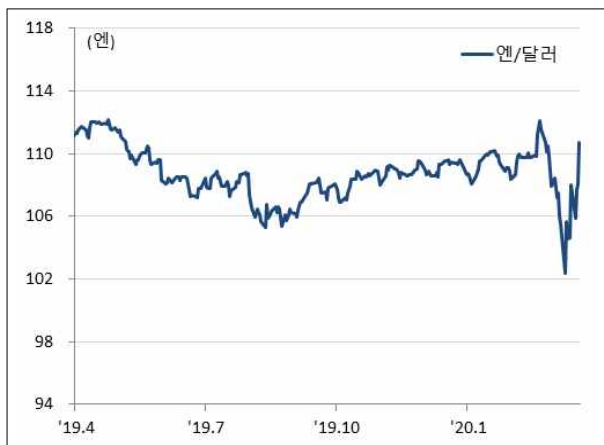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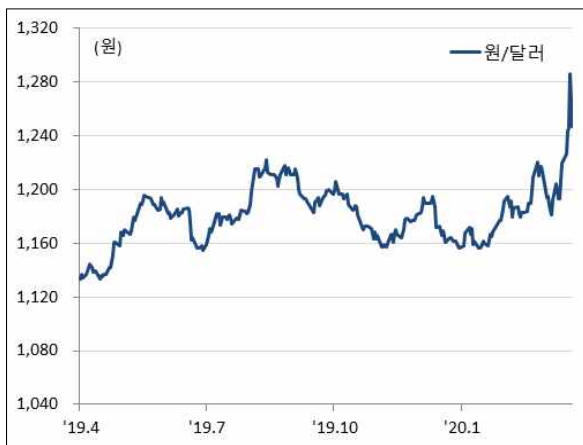
- 향후 한의학 또는 대체의학에 기반한 자체 면역활성제 개발 및 국제기구의 지원을 통한 진단능력 향상에 집중할 것으로 보임
 - 코로나19 감염 등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천연 약제인 면역활성제* 개발 추진
 - * 우영 바이러스 물약, 금당-2 주사약, 호흡기계통 질병 치료에 좋은 고려약 개발 (연합뉴스, '20.2.24, 노동신문, '20.2.25)
 - WHO를 비롯한 국제기구의 지원을 통해 코로나19 진단역량 강화*를 위해 노력 중
 - * 1718 제재위원회 홈페이지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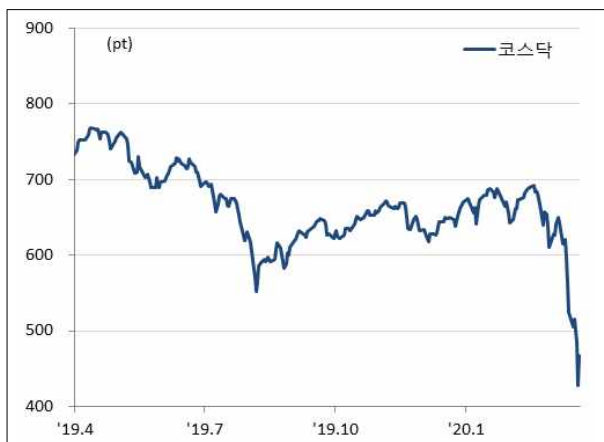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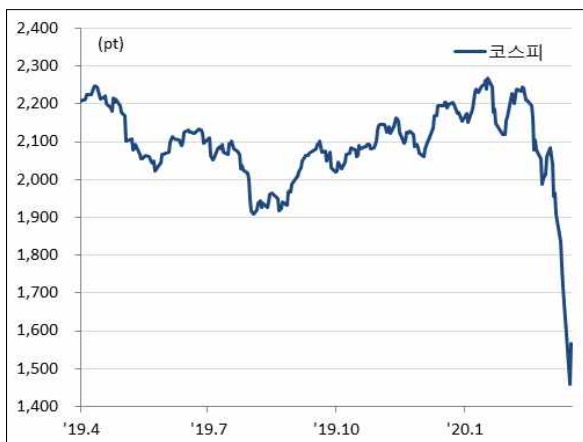
금리 국고채3년 1.107% (4.2bp ↓), 신용스프레드 51bp (5.5bp ↑)



환율 원/달러 1,246.5원 (27.2원 ↑), 엔/달러 110.72엔 (2.74엔 ↑)



주가 코스피 1,566.15pt (11.59% ↓), 코스닥지수 467.75pt (10.73% ↓)



* ()는 전주대비 상승 ↑, 하락 ↓, 신용스프레드와 엔/달러는 목요일 종가 기준

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제871호

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인터넷 rd.kdb.co.kr, kdb.co.kr
문의 787.7826

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.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, 원고의 무단전재, 복제,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.